

HELLO, I AM HYUN-JIN FROM SOUTH KOREA

and have been studying at Nelson College for Girls since 2013.

The reason I came to New Zealand was to study English. I was only 15 years old when I heard about the country called "New Zealand" through my agent. I had absolutely no idea where New Zealand was and to be honest, at first I was not interested at all. However, I soon decided I would like to study in New Zealand and wanted a city without too many Korean students. Some of my Korean friends had gone to study in big cities where they only made Korean friends and could not make the local friends. The agent introduced me to Nelson College for Girls. Nelson is small but very safe and does not have many Korean students. In a big city, there are lots of Korean people and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so the school cannot really focus or help everyone but at Nelson College for Girls, we have just the right ratio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 you can get help, make lots of kiwi friends and speak more English.

School life at NCG: First of all,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high school and NCG is that we can choose the subjects we want or need for our future. We have three members of staff in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ur Dean is in charge of helping us to choose the subjects and making sure that we are on the right track for the future and she has given me lots of help for my university next year. Also, sometimes the timetable might have a clash so we may need to take another subject instead. This happened for me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I was worried I might have to give up on my music. However, my Dean rang the music teacher at Nelson College and arranged for me to study music there.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girls' and boys' colleges share the senior curriculum. She is very organised and helpful and always makes the best suggestion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nother international member of staff helps me with finances and any documents I need and always drops everything to help me whenever I need help. She encourages me and supports me all the time. The international staff in our college are more like big sisters than just teachers. We gossip sometimes and they understand students from their heart, not just with their mind.

Homestay and Boarding House experiences at NCG: I first stayed in the Boarding House at NCG which gave me a great chance to make lots of kiwi friends in different year groups. Also, it was very meaningful for me to experience the different culture of corporate life with the local sisters. Now, I'm in homestay accommodation as I wanted to see what the homestay life is like. The Homestay Coordinator interviews us every term and asks about school, homestay and anything she might be able to help with. She is very friendly and always tries to find the most suitable host family for each student. I love where I am staying and my host mother treats me like her real daughter.

So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even when we make the best choice, we always wonder at some point. I am still a teenager, and although Nelson is quite small, I have been able to travel around and see more of New Zealand in the holidays. When I look back and think about where I am now, I am so pleased that I did not move school or leave Nelson. It hasn't always been easy but I insist if the school, teachers, host family and friends did not support me, I wouldn't be here today in this position. I learned and gained a lot from Nelson College for Girls and I hope that more Korean sisters will also come to Nelson College for Girls and take even more than I did to become brilliant people.

저는 2013년도 부터 넬슨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고3) 장현진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오게 된 계기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중3이었던 저는 유학원을 통해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소개받았고, 그 전까지 제게 뉴질랜드란 생소하고 관심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와 같이 큰 도시로 유학을 가지 않고 넬슨이라는 작은 도시로 오게된 이유는 넬슨은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학교에 한국인 비율도 매우 적고, 매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큰 도시에서 유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역시 넬슨에서 유학하는 저에 비하면 현지인 친구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매일 한국친구들과 올려 다니느라 영어도 많이 못쓴다고 전해들은 적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큰 도시에서 유학하다가 넬슨으로 학교를 옮기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큰 도시는 큰 도시인 만큼 외국인 비율도 많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거나 관심을 많이 못 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쓰는 언어는 같은데 이왕 유학하는거, 작은 도시라도 한국인이 별로 없고 안전하면서 학교로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넬슨여자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일단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서는 11학년 (고1)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 대학교 진입에 필요한 과목 등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국제학생들만을 위한 선생님이 세분 계시고, 그 중 국제학생의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학진학이나 진로를 위해 학교에서 해야 할 것들이나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시고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저도 대학진학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국제학생 많지 않다 보니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을 고르다 보면 가끔 시간표가 맞지 않아 다른 과목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올해 저도 부득이하게도 음악수업을 못 들을 뻔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와 같은 수업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웃 학교 넬슨고등학교에 연락하여 그곳에서 음악수업을 들을 수 있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다른 국제학생 담당 선생님은 유학 중 필요한 서류들이나 금융 관련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단순히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라기보다, 때로는 큰 언니 같고 친구 같이 소소한 수다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학생들을 이해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시라고 느낍니다.

기술사와 흉스테이 저는 이 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숙사도 흉스테이도 경험해 봤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많은 현지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다른 문화의 단체 생활도 경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기 전에 기숙사 경험이 있었던 저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흉스테이로 옮겼고 현지의 많은 흉스테이 가족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국제학생 흉스테이 담당 선생님은 매 학기마다 학교와 흉스테이 생활에 관해 인터뷰를 하여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항상 학생들의 말과 의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흉스테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흉스테이 가족은 항상 저를 친밀처럼 대해주십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방학마다 학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큰 도시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넬슨에 있어서 재밌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았던 유학생활이지만 힘들어 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의 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넬슨여자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정말 많기 때문에 꼭 많은 한국인 동생들도 저희 학교로 와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